

지역작가와 창작공간 새로운 도전

도립미술관, 중국 사천미술대학과 업무협약

완주 두베,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아트커넥션 프로젝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4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교육체험 두베(대표 이문희)가 완주군 소양면을 거점으로 아트커넥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레지던시를 지원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북형 레지던시 활성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거주형에 2개 단체, 비거주형에 2개 단체가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비거주형에 선정된 두베는 한옥 아트빌라 '소양고택', 복합문화공간 '두베(DUBE)', 독립서점 '플리커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회 이상의 북토크 및 기획전시

등을 선보이며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소양면의 풍광과 어우러지는 고택이 자아내는 공간적 매력으로 인해 각종 기업 및 방송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누적 방문객 수 80만명을 달성했다.

올해 창작공간(레지던시)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두베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작가는 고지은, 유시라, 이민우, 이수아 등 4명이다. 이들은 두베에서 제공하는 작업공간과 전시 공간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바탕으로 도민과의 적극적인 교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베 이문희 대표는 "재단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돼 레지던시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두베는 일상적인 생활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관객으로 하여금 예술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계획한 '아트커넥션 프로젝트'는 예술가, 기획자, 공간, 그리고 관객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해 새로운 시각과 예술적 비전을 창출하며, 예술을 통한 사회적 연결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한편, '아트커넥션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되는 2024 두베 레지던시는 12월까지 입주 작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4회, 퍼블릭 프로그램 3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지원팀(063-230-744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작품·작가·학예업무 교류·공동 발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등 협력키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지난 27일 중국의 3대 미술대학 중 하나인 사천미술대학실험미술학원(원장 리추안)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천미술학원은 중국 서남지구 유일한 고등미술학원으로 1939년 개교, 휘중리, 평정지에, 장사오강 등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를 배출한 명문 미술 교육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소장품 및 작품 교류 △작가 및 비평가 교류 △작품연구에 대한 학예업무 교류 △기타 협약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충칭시 대안공간 바이스페이스에서 1980~90년대 전북지역의 추상미술과 민중미술을 소개하는 특별전 '더비매치'를 개최하고 있다. 또 전시연계행사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사천미술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과 지역작가, 충칭시코트라 관장 및 부관장, 충칭시 한인회 회장 및 회원들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애선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의 중



요 미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작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에 지역작가들과 중국미술가들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립미술관은 지난 9~19일 중국 강소성미술관과 우호교류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진행했다. 회화, 조각, 판화 등 소장품 57점으로 기획된 전시는 전북미술이 갖고 있는 실용성과 지역성에 대해 지역작가 및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올해 첫 사회공헌활동 펼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협약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8일 오후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올해 첫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재단과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협력해 200여 명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총 두 곳의 부스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홍보, 모바일 건강보험증 현장 발급 안내, 친환경 문화예술교육 키트 체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캠페인도 벌였다.

더불어,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현장 발급을 도와 어르신들의 의료복지 편의에 기여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ESG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친환경 문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8일 오후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올해 첫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예술교육 체험활동으로, 천연삼베와 스티커를 활용한 다용도 전 만들기 등과 함께 천연수세미, 대나무 칫솔이 구성된 교육키트다. 이 밖에도 밑반찬 나눔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관 일대 환경정화를 실시하는 등 지역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지

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해도 여러 지역을 방문해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공동선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오는 6월 부안에서 자원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정책팀(063-230-741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8일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지사장 박운철)와 문화예술관광 및 ESG 연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경운 대표이사와 박운철 지사장이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문화예술관광 분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ESG 활동을 상호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예술관광 분야 교류를 통한 사업 협력, △공단 관리 주거 단지 연계 사회공헌 및 ESG 활동 연계, △양 기관 문화예술관광 향유 기회 증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단은 현재 공단이 관리 중인 도내 주택단지 거주민 대다수가 문화예술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문화예술관광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운철 지사장은 "거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재단과 함께 단지 거주민들의 문화예술 관광 향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지 내 거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뿐만 아니라 ESG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시민 기자단 초청 팸투어 진행

순창공립심진강미술관, 김신교 작가 초대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25일 전당 일원에서 시민 기자단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팸투어는 시민 기자단이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작성한 기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기획됐다.

이 자리에는 시민기자단을 비롯해 전북특별

자치도 블로그 기자단 및 관광모니터단, 전주 시 블로그 기자단 등 16여 명이 참여해 한지, 한식, 전통놀이, 수공예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에 기자단은 천년을 가는 종이인 한지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고 제조하고, 이를 활용한

한지 접시 공예품을 만들었다. 이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식도락 이야기가 담긴 전주비빔밥을 만들어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취한옥마을 내 위치한 우리놀이터 마루담을 방문해 섹류, 사방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을 즐기며 놀이에 얽힌 옛 추억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기획 전시와 명품관, 판매관 등을 둘러보며 팸투어 일정을 종료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순창공립심진강미술관 전시실에서 전주 출신 '김신교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신교 작가 초대전'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Harmony)라는 주제를 두고 내면의 이야기와 그에 따른 감성의 조화를 그림으로 풀어낸 김신교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심상(心狀), 자연의 하모니 등의 수준 높은 회화작품으로 말미암아 미

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문화와 예술이 주는 사색(思索)을 향유(享有)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김신교 작가 초대전 개관행사는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진강 미술관(063-653-22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의 중심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